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일본 기소 아카사와 휴양림 편백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원장 배상원

사진 1 = 아카사와 자연휴양림 표지판





사진 2 = 아카사와 자연휴양림 입구 전경

아카사와(赤澤) 휴양림이 위치한 나가노현은 일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000 m급의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 “일본의 지붕”이라고 한다. 이중 일본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은 주부 지방에 있는 히다 산맥, 기소 산맥, 아카이시 산맥이다. 나가노현에는 도카지다게의 수백 년생 삼나무 노거수 길과 일본 최초의 휴양림이자 편백나무의 산지인 아카사와 자연휴양림에는 수령 300년을 넘는 기소 편백 숲이 있다. 편백(*Chamaecyparis obtusa*)은 일본이 원산인 침엽수로 수고가 30m 이상, 흉고 직경 2m 이상 자라는 상록교목이며, 목재의 향이 좋고 재질이 좋아 내장재와 건축재로 이용이 되는 나무다.

일본 속담에 삼나무로는 배를 만들고 편백으로는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일본에서 편백숲으로 유명한 곳은 나가노현 기소 지역으로 수백 년이 넘는 편백나무가 많이 있지만 현재의 편백숲은 에도(江戸)시대로 거슬러간다. 1600년대 초반에는 편백나무가 많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이루어진 천연 침활혼효림이 에도시대가 시작되

면서 목재 수요가 급증, 특히 17세기 중반에 에도성, 나고야성 등의 건축과 1657년 에도대화재(江戸大火災)로 기소 지역의 편백숲이 황폐화되었다. 이에 에도시대 중기인 1700년에 유산제도(留山制度)가 도입되어 산림의 이용을 제한하고 침엽수의 벌채를 금지해 숲이 다시 이루어졌다. 특히 기소지역에는 편백, 화백, 나한백, 금송, 측백나무의 벌채를 금지하였다. 이 5개 수종을 기소 5목이라고도 한다. 아카사와 휴양림은 아키다(秋田)현의 삼나무, 아오모리(靑林)현의 나한백과 함께 일본의 3대 림(美林)으로 불린다. 아카사와 휴양림은 일본의 자연 100선에 선정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최초로 1970년에 휴양림으로 개장한 아카사와 휴양림에서 1982년 전국 삼림욕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이 세신궁 건축용 편백 목재를 공급하였다. 휴양림에는 수령 300년 이상의 편백이 많지만 원시림은 아니고 1600년대 중반에 시행한 엄격한 삼림 보호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다.



사진3 = 휴양림 입구 계곡 전경



사진 4 = 관광용 산림 열차

휴양림의 면적은 728 ha, 해발 1,080~1,558 m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평균 휴양림 방문객은 10만 명 정도로 휴양림에는 수령 300년 이상의 편백이 많지만 원시림은 아니고 1600년대 중반에 시행한 엄격한 삼림 보호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다. 아카사와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여 큰 차가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이다. 휴양림 입구로 들어서면 넓은 계곡이 나타나고 자료관과 관리소 건물이 나타나는데 건물 내부는 편백 목재로 내장을 하여 들어서면 향긋한 편백 향이 난다.

건물 뒤쪽으로는 편백숲이 자리를 잡고 있어 이곳이 편백 치유숲·휴양림임을 알 수 있다. 자료관에는 임업의 역사, 도구, 숲에 서식하는 동물과 곤충 등, 생태계, 기소 5목 등이 전시되어 있다. 휴양림 내에서는 임업용 목재 운반 철도인 삼림철도를 방문객을 위해 1.4 km 구간을 운행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8개 삼림욕 코스가 있는데 길이는 1.5 - 3.5 km로 체력이나 시간에 따라 산책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공개 학술연구로도 있는데 학술연구지역은 노령 편백림의 유전자 보호와 대경목 보존을 목적으로 관리 중인 특별구역으로 학습 연구를 할 때에 한해 들어갈 수 있다.



사진 5 = 아카사와 자연휴양림 노령 편백숲



사진 6 = 다양한 크기의 편백나무로 이루어진 숲

산책로는 계곡 옆으로 나있어 기소 지역의 대표적인 편백 숲과 계곡 경관을 변화 있게 볼 수 있다. 산책로는 서로 연결되어 다른 산책로로 들어설 수 있는데 산책로 옆으로 기차길이 있어 산속에서 달리는 기차도 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를 더 해준다. 편백 숲으로 들어서면 굵기가 한 아름이 넘고 수고가 30m가 넘는 편백 노거수가 하늘 높이 자라고 있어서인지 숲속이 편백 향으로 가득 차 있다.

편백 노거수 사이로 난 산책길에는 편백 뿌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 산책길이 뿌리로 덮여 있는 곳도 있고, 숲속에는 넘어진 나무도 띄엄띄엄 있어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을 보는 것 같다. 수령이 300년이 넘는 편백의 뿌리 부분은 다양한 형상을 보이고 있어 숲속에 조각품을 전시하여 놓은 것 같다. 이런 뿌리 형상은 토양침식, 고사목 줄기 위에 어린 나무가 자라고, 고사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으면서

생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숲이 편백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나무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비슷해 보이는 측백, 계곡부에는 물참나무 등 활엽수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왕실에서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짓는데 이곳 편백을 이용하였다. 이세신궁 건축 및 개보수에 사용된 나무는 벌채되기 이전에 시제를 지내고 그루터기에는 간판과 보호막을 설치하여 보존되고 있다. 궁을 짓기 위해 나이가 300 - 400 년이 되는 커다란 나무를 벌채하였기 때문에 나무를 신성화하고 있는데 그루터기의 폭이 2~3 m 정도가 되는 것을 보면 벌채된 나무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케 한다.

편백숲 깊숙이 들어가면 편백 노령림이 나타나는데 굵기가 한 아름이 넘는 나무들이 숲속을 가득 채우고 자라고 있고, 노거수는 다른 나무 그루터기를 감싸고 자라는 있는 모습이나 두 나무가 서로 엉겨 자라고 있는 것은 모양은 수백



사진 7 = 노거수의 편백 줄기

년된 숲의 나이를 보여주고 있다. 숲이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벌채 후 군데군데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는 것을 보면 숲 가꾸기 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숙아베기를 실시하여 상층이 약하게 소개가 된 곳도 있고 하층도 정리가 된 곳도 있어 편백숲을 유지하기 위해 숲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천연갱신 시험지를 조성하여 편백숲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연구도 하고 있다.

아카사와 휴양림의 편백숲은 훼손된 숲을 건강한 숲, 복원한 숲으로 일본의 편백숲을 대표하고 있다. 이세신궁 등의 건축과 보수 등에 이용된 편백을 신격화하여 이 곳 편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편백숲의 고향이 기소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특히 아카자와 휴양림의 편백숲은 일본의 3대 미림(美林)으로 일본 최초의 휴양림이자 치유숲으로 발전을 숲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다.



사진 8 = 휴양림 내 산책로



사진 9 = 신목으로 보호받는 그루터기(이세신궁 보수용 벌채목)